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

김윤덕 국토부장관, 점검회의 열고 추진 현황·향후 계획 점검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이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사업 후보지 발굴(연내, LH), 미래도시 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6월 ~, HUG),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부동산원),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법제연)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1분기, LH),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국토연, 교통연),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LX)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를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3월~)해 주민에게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3만호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다크팩토리’로 제조 혁신·기술 수출

정부, ‘피지컬 AI’에 2조원 투자... 국회서 조찬포럼

정부가 로봇과 제조를 결합한 ‘피지컬 AI’ 분야에 2조 원을 투자해 무인화 공장인 다크팩토리 구축에 나서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해외 수출을 추진한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C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정부는 피지컬 AI에 2조 원, 에이전틱 AI에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로봇의 제작·생산·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피지컬 AI를 통해 우리 기술로 다크팩토리를 구축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정욱 삼성SDS 부사장은 “미래의 에이전틱 AI는 사람을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 업무 전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인프라·플랫폼·솔루션을 통합한 AI 풀스택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수 네이버 전무는 “에이전틱 AI의 가치는 사립 성적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비용과 시간을 얼마나 절감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조원철 현대자동차 상무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트윈, 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조의 지능화가 확대돼야 한다”며 중공 테크 기업들의 빠른 시장 진입에 대응한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정동영 의원(동일부장관 겸임)과 최영두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참석자들은 AI 풀스택과 피지컬·에이전틱 AI가 민간과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도의회 교육위 심의 통과

강동화 도의원 대표발의

유기학생 조기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포함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 상황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원 체계 구축, 관계 기관 협력 방안, 교직원 전문성 향상,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이 담기며, 학생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회를 설치하여 기관 간 협력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조용식 익산시장 출마예정자

교통·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통·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표했다.

조 전 청장은 우선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7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쿠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도 제시했다. 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려 직장인과 시민,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인원을 전제로 한 스쿨존 속도 제한의 탄력 운영 방안도 밝혔다. 등·하교 시간에는 시속 30km를 유지하되, 그 외 시간대와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완화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해 추진하고, 안전시설 보강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故 이해찬 상임고문 합동 추모식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고(故) 이해찬 상임고문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가행된 가운데, 유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안호영·이원택 의원 등 참석자들이 일제히 추모를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전북 유치 서명 4만명 돌파”

전북 유치추진위, 서명운동 경과 발표 “내달 말까지 10만 도민 서명, 정부 등에 전달키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북 유치추진위원회(상임대표 채정동)는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경과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을 통해 현재까지 4만명이 넘는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오는 2월 말 이재명 대통령의 탄원서 미팅 이전까지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북 유치추진위원회 소속 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정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송진탐 대신 공장을 유치하지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에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며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끝내고, 전북이 생산한 깨끗한 전기로 전북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반면, 전북은 즉시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산업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오는 것이 상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북 유치추진위원회는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며 기업의 지역 이동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에너지 자산지산’ 원칙이 정부 차원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명운동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탄소중립 전북행동 등 5개 단체로 시작된 참여는 현재 시민사회, 경제·산업계, 노동계, 종교·교육계를 포함한 42개 단체로 확대됐다. 군산·전주상공회의소와 대한건설협회 등 경제·직능단체도 동참하며 범도민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추진위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반도체 산업의 전북 분산 배치를 처음 공식 제기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문제 해결을 선언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중단 위기에

놓였던 SK 새만금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열렸고, 반도체 산업 전북 배치의 전력 기반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가 반도체 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호남권 내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정 정치인 개인을 넘어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전체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10만 명 서명을 완수해 정부와 국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식 전달하겠다”며 “기업에는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입지를 정부에는 반도체 산업의 전북 분산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주영은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3대 민생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에 3대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국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빛을 갖고 세입을 확대하며 지출을 조정해 그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겠다”며 “전주시는 재정적 어려움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았던 도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전주시 전원에 걸쳐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1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세 번째 공약은 햇빛소득 마을 선도 도시 조성을 통한 전주형 농촌기본 소득 도입이다. 한편 국주영은 도의원이 최근 더불어



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에 임명되었으며, 여성 최초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2기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였고, 민선 9기 여성 최초 전주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제의 미래 약속 ‘시민주권시대’

김제시장 출마 내인권 도의원, 내달 1일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내인권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오는 2월 1일 오후 5시부터 김제여고 시청각실에서 저서 내인권과 시민주권시대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내 의원은 이 책에서 권리가 보호되고, 약자가 안전하며, 기회가 공정하게 열리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김제의 미래 방향을 담은 약속을 기록했다고 출판 소감을 전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 모두가 존엄한 김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책을 펴냈다고 강조했다.

내 의원은 “정치의 중심은 사람이요, 사람의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어떤 계획도 공허할 뿐”이라며 이 책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김제의 미래 구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민생우선 실용주의를 김제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 등도 실고 있다.

내 의원은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통해 김제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정치철학 등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열 계획이다.

내인권 의원은 재선 전북도위원으로 (전)이재명 대선후보 민생소통추진단 소소위원장 및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방자치특별로 활동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를 향한 시민의 깊은 애정·성찰

‘도의원 출마’ 송재영 작가 출판기념회 내달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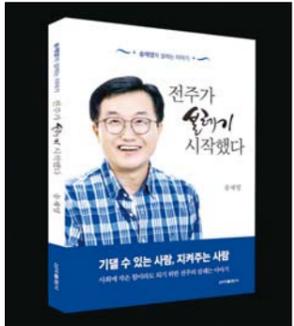
송재영 작가의 신작 에세이 ‘전주가 설레기 시작했다’ 출판기념회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전주가톨릭이전수관 계동극장에서 열린다.

‘전주가 설레기 시작했다’는 2025년 한 해 동안 작가가 전주시 곳곳을 직접 걸으며 보고 느낀 풍경과 사유를 담아낸 기록이다. 여기에 전주에서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겪은 삶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단순한 도시 관찰을 넘어, 전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민의 역할을 진지하게 성찰한 에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송 작가는 책을 통해 “전주를 어떻게 하면 설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전주가 ‘설레 수 있을까’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설레기 시작한 도시라고 강조한다. 변화의 조건은 무르익었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행정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다.

이번 책은 거창한 담론보다는 일상의 언어로 전주의 현재를 기록하며, 도시의 미래를 시민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 짓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 작가는 “우리가 모두 전주를 설레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 하나씩 새로 지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책 곳곳에 담았다.

송재영 작가는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31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며, 이후 법무사의 길 대신 다른 사람의 삶을 돕는 일을 선택해 브런치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과 공공기관에서 글쓰기 강의의 진행했고, 법률 특강과 청소년 멘토링, 전주시 삼천동 주민자치위원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송 작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전주시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주가 설레기 시작했다’를 통해 전주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고민과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출마 예정 지역구는 삼천·2·3동과 효자동이다.

전주 토박이인 그는 원산초, 덕진중 전주고, 전북대 원광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검찰청 수사관 퇴직 후에는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민과의 소통 속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체득해 왔다. /이만호 기자